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노인가정의 소유물 배치패턴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Possession Display Pattern as a Mean of Self-identity Expression in Older People's Households

최정신*
Choi, Jung-Shin

Abstract

What is the meaning of home to older people? How much is home significant for older people? How do they express self-identity through decorating their own homes? These are the new subjects that scholars in the West are involved in lately in terms of micro-perspective (George, 1998; Kellett, Gilroy & Jason, 2005; Gilroy & Kellett, 2006). It is evident that home has more significant meaning to older people than other age groups, since the older are more likely to spend greater time within the home through lower income, lessening mobility or loss of companions (Gilroy, 2005). Also the older tend to cling to their homes and attach to possessions than the younger. Older people's possessions are the things that memories of their lives were absorbed. Therefore, possession display can role as a mean of showing their past lives and memories. Gilroy and her colleagues (2005, 2006) found that there was a certain pattern of possession display in English older people's households, and that older people would like to express self-identity through decorating their own homes with their precious possessions. Then, isn't it interesting to find out if there is any pattern of possession display or decoration items in Korean older people's households as well?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pattern of possession display as a mean of expressing self-identity in Korean older people's households. Interview with older people was used to find out the way and reason of display possessions. Observation method including taking photos and hand-drawings was also added in order to demonstrate detail condition of display items in the house. Possessions display and furniture arrangement in the living room and bedroom were investigated to find out a certain pattern of display and meaning. Research objects were healthy older people aged over 60, who are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ir adult children, and who can manage housekeeping by themselves. 32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in the area of Seoul, Kyunggi, Chungchungnam, and Kangwon provinc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most precious possession for Korean older people is photo of themselves; especially one taken in their younger age. The reason of it is because the photo reminds them of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vital. Photo of the most beloved one is displayed more frequently in the bedroom than in the living room indicating consistence with English case. As symmetrical display pattern was dominant in case of English older people's households, no dominant display pattern is found in Korean case. Korean older people also cling to their homes and possessions and want to keep their dwelling space as large as what they use now. It is notable that even after they become older and frail, they want sufficient space to display possessions as a mean of self-identity expression. Attachment to possessions and decoration can give older people significant meaning of identity, and it is the reason why architects or interior designers have to meet older people's needs. It needs consideration that residents are allowed to bring their old furniture and precious possessions when they move in elderly housing unit in order to minimize environmental shock, as well as feeling at home. This subject could suggest a clue to designers or architects who have to meet residents' needs in space design of elderly housing or facilities in the futur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eople can be met by making them feel at home wherever they live. They need space where they can express their own identity and personality even in case when they have to live in a limited small space like elderly housing unit or nursing home.

Keywords: Older People, Possession, Display, Self-identity, Elderly Housing

주요어 : 노인, 소유물, 배치, 자아정체성, 노인주택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문학박사

본 논문은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이란 사회학과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심적인 개념이다. 자아(self)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적어도 3개의 주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사회학자들은 자아를 사회구조와 개인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체제로서, 사회구조와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연결 짓는 가장 원초적인 교량으로 보고 있다. 둘째, 사회학과 행동(behavior) 과학자들은 자아와 정체성은 개인의 안녕(well-being)의 기본이므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아와의 관계, 역할수행, 인간관계의 질, 그리고 주관적인 안녕에 자아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한다. 셋째, 자아는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심적인 힘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George, 1998).

그러면 자아 정체성과 가정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노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중요성은 얼마나 큰가?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을 장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서구 사회에서 심층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George, 1998; Gilroy, 2005; Kellett, Gilroy & Jason, 2005; Gilroy & Kellett, 2006).

노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다. 노인들이 고령화에 따라 수입 감소, 심신 허약, 불편한 거동, 동반자 상실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연히 외부보다는 주택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Gilroy, 2005). 또한 노인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젊은 시절동안 직업 활동을 통하여 수행하였던 자신의 역할이 상실되지만,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는 가사업무 수행, 집안 꾸미기, 손자녀 돌보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이 남아있으므로 가정의 중요성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가져오기도 한다(Gilroy & Kellett, 2006).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젊은 세대들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상대적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래 머무는 자신의 집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특성 중에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자신들이 젊은 시절부터 사용해 왔던 물건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느끼고 그 사물 하나하나에 담겨진 추억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연관 지어 노인들이 자신의 소유물로 집안을 어떻게 장식하고, 어떠한 물건을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젊은 세대들보다는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길로이(Gilroy)와 켈레트(Kellett)(2005, 2006) 등은 영국

의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집안에 소유물과 장식품을 배치하는 사례를 관찰하여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벽난로 위에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유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형태는 대칭형이 우세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대칭형의 중앙에 놓이는 물건이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소유물인 점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노인주택 디자인이 거주(housing)와 보호(care)의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지위와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거주환경에 물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거주자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주환경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노인의 안녕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종류의 다학제적이고 미시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과 한국, 양국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고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은 무엇이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과 장식품의 배치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장식패턴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주택을 디자인할 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의미, 소유물에 대한 애착과 장식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거주자의 심리적인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노인가정의 소유물의 배치 유형을 파악하고, 그러한 패턴으로 장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 1) 노인들은 주거 내 어느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 2) 노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소유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3) 노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소유물은 어디에 배치하는가?
- 4) 노인가정의 소유물 배치 유형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관찰조사를 이

용하였다. 조사원은 주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조사원 6명이 3인1조로 구성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 주거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조사를 통하여 가구배치를 포함한 주택실내도면을 작성하였고, 소유물의 종류와 배치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실과 주 침실에서 소유물이 장식된 주요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자신의 가정을 공개해줄 수 있는 노인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노인의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은 본 연구의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한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노인의 연령, 가족구성과 신체적 자립성이 가정의 실내장식에 대한 결정권, 의욕과 능력을 좌우한다고 판단되어 60세 이상이고, 기혼자녀와 별거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건강한 노인부부 또는 독신노인만을 연구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켰다. 주거공간 요인 중에서는 가정 내 소유물 배치에 관련이 깊은 거실과 주 침실 1개만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III. 조사도구

1. 심층면접용 조사도구

심층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사항 6문항, 주거요인에 관한 사항 6문항, 장식할 소유물의 선택에 관한 사항 2문항, 소유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9문항,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관한 사항 3문항,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관찰조사용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주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주택실내도면 그리기와 사진촬영을 하였다.

주택실내 도면은 조사자들이 주택 전체 평면도를 프리 핸드(free-hand)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리되, 스케일이 맞도록 유의하였고 평면도에는 거실과 주 침실 공간의 가구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면도만으로는 벽면의 구체적인 장식모습을 알기 어려우므로 소유물의 배치 유형과 소유물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실과 주 침실 공간에서 각각 주요 장식부분을 최소한 두면 이상씩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가 허락할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조 해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60대 이상의 노인이 세대주이며, 자신 스스로 또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소유물로 가정의 실내를 장식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 32명이다<표 1>.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9명, 여자 23명으로 2/3 정도가 여성이다. 응답자 본인의 연령은 70대가 19명(59.4%)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60대가 10명(31.3%), 80대가 3명(9.4%)이며 그 중 부부가족은 20가구이다. 배우자의 연령은 70대(10/50.0%)와 60대(9/45.5%)가 거의 비슷하며 80대는 1명 뿐이다. 거주지는 수도권인 경기도(19)와 서울(9)이 28사례로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충남(3)과 강원도(1)에도 분포되어있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연립주택(12/37.5%)과 단독주택(11/34.4%), 아파트(9/28.1%)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소유형태는 대부분이 자가(23/71.9%)이고 자녀소유(5)와 임대(4)가 비슷하며, 66~98 m²(20~29평)에 거주하는 경우(13/40.6%)가 가장 많다. 거실과 부엌을 제외한 침실 수는 2개(10/31.3%) 또는 3개(15/46.9%)가 일반적으로 노인부부 또는 독신으로 지내기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주거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주거공간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29/90.6%)고 생각한다.

현 주택에서 7년 이상 거주한 경우(21/50.0%)가 가장 많고 그 중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9사례나 있어서 젊은 세대보다 주거이동이 잦지 않고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긴 노인가구의 특성을 나타낸다<표 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2 f(%)

성별	남	9(28.1)
	여	23(71.9)
거주지	경기도	19(59.4)
	서울	9(28.1)
	기타	4(12.5)
연령	60대	10(31.3)
	70대	19(59.4)
	80대	3(9.4)
배우자의 연령	60대	9(45.0)
	70대	10(50.0)
	80대	1(5.0)
가족구성	부부	18(56.3)
	독신	7(21.9)
	미혼자녀동거	7(21.9)

*본 논문은 조사대상 사례수가 적어 대부분 백분율보다 사례수를 직접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N = 32 f(%)

주택유형	단독주택	11(34.4)
	아파트	9(28.1)
	연립주택	12(37.5)
소유권	자가	23(71.9)
	임대	4(12.5)
	기타	5(15.6)
거주면적(m ²)	65 이하	7(21.9)
	66~98	13(40.6)
	99~131	7(21.9)
	132 이상	5(15.6)
침실 수(개) (거실, 부엌 제외)	1	2(6.3)
	2	10(31.3)
	3	15(46.9)
	4 이상	5(15.6)
	충분함	29(90.6)
주거 공간	부족함	3(9.4)
	5 이하	11(34.4)
거주기간(년)	6~10	26(81.3)
	11 이상	16(50.0)

“영감이 살아 계실 때 부터 둘이 살던 아파트인데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나 혼자서 이사하기도 힘들고, 또 큰 아들네, 작은 아들네가 모두 한 단지에 가까이 살아서 별 불편이 없으니 그대로 사는데... 나 혼자 살기에 방이 3개니 넉넉해...”(분당의 K씨 할머니).

“나는 이 집에서 26년째 살고 있어. 아이들도 어려서는 여기서 자랐지만 이제는 모두 서울 올라가서 직장생활하고 나는 여기서 자그마한 농사도 짓고 혼자 살지. 나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좋지 이사가는 거 싫어...”(강원도 L씨 할머니).

3.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거실(16)과 침실(15)이 거의 비슷하고, 서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자 노인이 한명 있다. 거실에서 많이 보내는 사람은 TV가 잘 보이는 위치(11)에 있기를 가장 좋아하고, 다음으로는 밖이 잘 보이는 창가(5)에 앉아있기를 좋아한다<그림 1>. 한편, 침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TV가 잘 보이는 위치(11)에 앉아있기를 가장 좋아하고, 출입문이 잘 보이는 곳(3), 그리고 거실 가까운 곳(1)의 순이다<그림 2>. 두 경우 모두 TV가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있기를 가장 좋아하는 점이 공통점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에게 TV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우리 노인네들이야 별 할일 있나? 시간이 많으니 낮에는 할멈 친구들끼리 모여 놀기도 하고, 화투도 치고, 텔레비도 보고... 심심한데 우리네한테는 텔레비 보는 게 큰 낙이지...”(분당 K씨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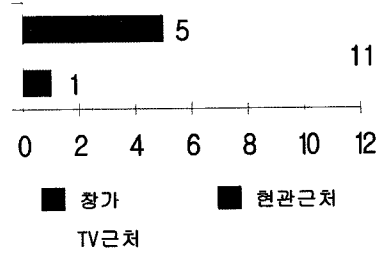


그림 1.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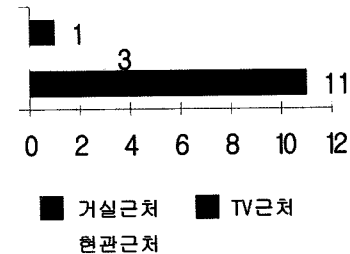


그림 2. 침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텔레비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있는데 나는 힘들 때는 주로 안방에 누워서 많이 보지...”(P씨 할아버지).

“나는 보통은 주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많이 봐. 거실이 작으니깐 혹시 애들이나 손자녀석들이 들르나 현관문이 잘 보이는 곳에서...”(역곡 J씨 할머니)

“나는 젊어서 교편생활을 오래했어. 그래 습관이 되서 그런지 내 서재에서 혼자서 컴퓨터도 하고 책도 보면서 지내는 게 좋아...”(철원 L씨 할아버지)

4.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과 그 이유

길로이와 켈레트(Gilroy & Kellett, 2006)는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물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흔히 노인들은 자신의 물건에서 기억을 끌어내어 이야기를 만들고 자아 정체감을 현실화한다. 그것은 이 물건들이 자신들의 삶을 형성해 온 문화적 내용이기 때문이다(Shenk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다른 소유물에 비하여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가장 높고(36/67.9%) 내용적으로는 본인 또는 부부사진(14/26.4%), 손자녀 사진(12/22.6%), 자녀 사진(10/18.9%)의 순이다<표 3>. 그리고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18/47.4%)이라고 응답한다<표 4>.

다시 사진을 현재와 과거로 그 시기를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본인 또는 부부사진 중에서도 현재(4/7.5%)보다는 과거 젊었을 때의 사진(10/18.7%)이 가장 많고, 자녀 사진 중에서도 현재(3/5.7%) 보다는 어렸을 때의 자녀사진(7/13.2%)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과거의 사진이 젊은

표 3.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
(복수응답) N = 53 f(%)

나 또는 배우자의 사진-현재	4(7.5)	14(26.4)
나 또는 배우자의 사진-과거	10(18.7)	
자녀 사진-현재	3(5.7)	10(18.9)
자녀 사진-과거	7(13.2)	
손자녀 사진-현재	7(13.2)	12(22.6)
손자녀 사진-과거	5(9.4)	
종교용품	6(11.3)	
가족(친지)의 선물	3(5.7)	
조상대대로 물려온 골동품	2(3.8)	
여행 기념품	3(5.7)	
기타	3(5.7)	

표 4.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복수응답) N = 38 f(%)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므로	18(47.4)
내 전성기의 추억이 담겨있으므로	7(18.4)
내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으므로	4(10.5)
나의 개성을 표현하므로	4(10.5)
모양과 색이 아름다워서	2(5.3)
여행의 추억이 담겨있어서	2(5.3)
소중한 사람이 선물한 것이므로	1(2.6)

시절 본인의 전성기의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7/18.4%)이라고 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응답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장식하기 위하여 소유물을 선택하고 이를 배치하는 데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회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길로이 등(2006)의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성기를 회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소유물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므로 18(47.4)내 전성기의 추억이 담겨있으므로 7(18.4)내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으므로 4(10.5)나의 개성을 표현하므로 4(10.5)모양과 색이 아름다워서 2(5.3)여행의 추억이 담겨있어서 2(5.3)소중한 사람이 선물한 것이므로 1(2.6)그 외에 중요시하는 물건은 종교용품(6), 선물(3), 여행 기념품(3), 등이고 그러한 소유물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거나(4), 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4)이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 사진은 우리 집사람과 젊어서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야. 그 때는 우리 둘 다 참 젊었고 힘도 좋았고 재미있었지...”(서울 P씨 할아버지).

“우리 큰 아들 결혼식 사진인데 보기 좋지? 내 나이가 그 때 선이었나? 이제는 우리 아들도 애들이 들이니 중년이 다 됐지...”(여곡 G씨 할머니).

“이 그림은 우리 영감이 그린거야. 생전에 화가셨거든...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 제일 좋은 곳에 놓고 보지...”(서울 S씨 할머니).

표 5. 소유물의 배치 N = 32 f(%)

가정의 실내장식은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본인	25(78.1)
	배우자	3(9.4)
	자녀	2(6.3)
	타인	2(6.3)
왜 본인이 실내장식을 합니까? (N=25)	나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14(56.0)
	나의 취미이므로	6(24.0)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5(20.0)
왜 본인이 실내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N=7)	관심이 없어서	5(71.4)
	기운이 없어서	2(28.6)
가장 소중한 장식물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침실	25(78.1)
	거실	7(21.9)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침실	22(68.8)
	거실	10(31.2)
장식물 배치 유형	분산형 배치	11(34.4)
	비대칭형 배치	11(34.4)
	대칭형 배치	10(31.3)
현재 장식공간의 넓이	충분하다	22(68.8)
	부족하다	10(31.3)
더 좁은 집으로 이사할 경우 장식공간의 넓이	현재대로 유지하고 싶다.	15(46.9)
	조금 줄여도 좋다	9(28.1)
	최소한으로 줄여도 좋다	8(25.0)

5. 소유물의 배치

가정의 실내장식은 주로 응답자 본인(25/78.1%)이 담당하고 그 이유는 자기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14/56.0%)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집안 꾸미기가 취미이거나(6)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5) 라고 응답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표 5>. 한편 실내장식을 본인이 하지 않는 7명의 경우, 실내장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5)이라는 이유가 기운이 없기 때문(2)이라는 이유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가정의 실내장식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집 장식은 모두 내가 해. 나는 집안을 예쁘고 깨끗하게 꾸미는 게 젊었을 때부터 취미거든...”(서울 L씨 할머니).

“집안 장식은 할머니 맡아서 하지. 난 그런데 관심 없어...혹시 수선할 데나 있으면 내가 손봐주지”(여곡 P씨 할아버지).

응답자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소유물을 거실(7/21.9%)보다는 침실(25/78.1%)에 배치하는 경향이 3배나 더 많은데 이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된다. 현재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입식으로 되어있는 거실보다는 좌식이며 다목적 용도인 안방 위주의 생활에 익숙하게 살아왔고, 안방이 현재는 침실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노화에 따라 체력이 저하되면서 좌식이던, 입식이



그림 3. 주로 침대에서 좌식으로 지내는 K씨 부부



그림 4. 많은 시간을 침실에서 좌식으로 지내는 P씨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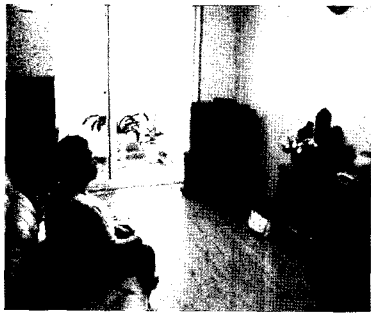


그림 5. 많은 시간을 거실에서 입 식으로 TV를 보는 J씨

던 간에 침실에서 누워서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기 때문에 사료된다<그림 3, 4, 5>

또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사진도 역시 거실(10/31.2%) 보다는 침실(22/68.8%)에 배치하는 경향이 2배나 더 많은데<그림 6>, 이것은 길로이 등(Gilroy & Kellett, 2006)이 조사한 영국 노인가정의 경우에 홀로 된 여성노인이 별세한 배우자의 사진을 침대 밑에 놓고 매일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 마치고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대

화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연상시킨다. 일반적으로 침실은 거실에 비하여 보다 프라이빗(private)한 장소로 여겨져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배치하는 장소로 흔히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거실은 썰렁하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니 중요한 건 난 안방에다 놓지..”(서울 L씨 할머니)

“난 애들 사진, 손자 손녀 사진은 안방에 걸어놓고 보는 게 좋아”(서울 J씨 할머니).

“돌아가신 영감 사진은 안방 침대 위에 걸어 놓았지. 자다가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분당 K씨 할머니).

소유물의 배치 유형<그림 7>은 비대칭형(11), 분산형(11), 대칭형(10)이 서로 비슷하여 특별한 유형은 찾기 힘들다. 이것은 길로이(2006)의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확장시절에 유행하였던 대칭형의 장식패턴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실내장식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아<표 5> 별다른 특징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주택에서 장식공간이 충분하다고(22/68.8%) 여기고, 만일 현재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에도 많은 응답자들(15/46.9%)이 장식공간은 그대로 두고 싶어 하고, 약간 줄이거나(9) 최소한으로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8)는 비슷하다. 이 결과는 비록 노인들이 허약해져서 노인전용주택이나 시설로 입주해야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경제성이나 유지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공간을 최소화하고 더구나 장식공간의 고려는 거의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Kim et al., 2007a; Kim et al., 2007b), 노인주택 설립자 또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가 어디에 살던 간에 누구에게나 그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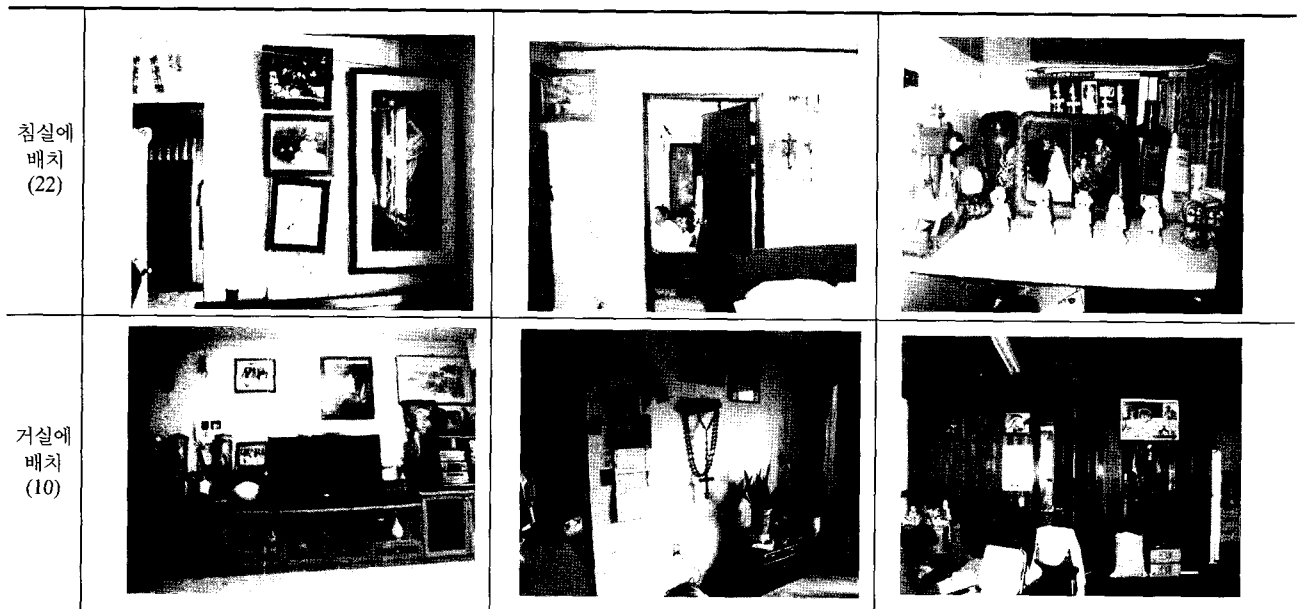


그림 6.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사진 배치장소 사례



그림 7. 장식물의 배치유형 사례

N=32

욕구이며 이를 공간 디자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만을 충족시킬 뿐,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의 상실, 소속감의 결여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감의 정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더 늙어도 양로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좁은 방 한 칸에 우두커니 앉아 지내는 건 싫어. 죽는 날까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넓게 살고 싶어”(서울 G씨 할머니).

“내가 늙어서 양로원에 들어간다면 내 물건들은 다 어떡하우... 남에게는 몰라도 내게는 모두 소중한 건데. 가구도 그렇고... 모두 다 내게는 뜻이 있는 거야. 젊어서 한푼 두푼 아껴서 마련한 것들인데... 이것들 다 버리고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어..”(서울 S씨 할머니).

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다양한 노인주택의 계획과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주택이 거주자인 노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관

리나 건축가, 디자이너 위주의 획일화된 디자인과 가구 배치 등을 함으로써 거주자의 개성이 무시되는 일은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되어 지나치게 공간절약이나 기능성만을 위주로 디자인 된 원룸(one-room)형의 노인홈에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고 노인들이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인 욕구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바이다 (Gilroy & Kellett, 2006; Kim et al., 2007a; Kim et al., 2007b).

오래 전부터 노인주택이 보급되어 온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지에서는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 노인홈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주거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평생 동안 아끼고 사용해 왔던 소유물과 가구들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령기에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변화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키고, 거주자 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깊은 애착을 유지시키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이 신체적 개인적 조건에 따라서 어디에 거주하던 간에 그곳이 정말 “자기의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초적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계획에 있어서 노인들의 가구와 장식물의 배치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거주자의 측면에서 디자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인주택을 설립할 때, 특히 개인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입주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규모의 실비, 또는 무료 노인홈의 경우에도 거주자 개인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나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능을 우선시하는 지나치게 적은 규모의 주택에서 4~6인 정도가 공동으로 침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무료노인홈, 또는 실비노인홈의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거주자에게 개인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보다 여유있는 노인홈 공간기준 규정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관상 지저분하다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일체의 개인 소유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획일화된 관리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입주 시에 개인의 가구를 반입할 수 없고 관리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획일화된 가구와 공간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거주자들은 과연 그 곳에서 인간적인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참 고 문 헌

1. Cooper Marcus, C. (1995), *House as a Mirror of Self: Exploring the Deeper Meaning of Home*, Conari Press, Berkley, California.
2. George, L.K. (1998), *Self and Identity in Later Life: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3(3), 133-152.
3. Gilroy, R. (2005), *The Role of Housing Space in Determining Freedom and Flourishing in Older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1), 141-158.
4. Gilroy, R. & Kellett, P. (2006), *Points of View: Displays of an ordered Life in the Homes of Older People*, Presented Paper at ENHR International Conference, Ljubljana Slovenia, 2-5 July, 2006.
5. Kim, D.N., Yoon, Y.S., Moon, J.H., Byun H.R., Hong, M.J. & Chung M.R. (2007a)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Furniture Use of Common Living Rooms in Korean Nursing Homes*, Presentation Paper at APNH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Korea, 30 Aug.~1 Sep, 2007.
6. Kim, D.N., Yoon, Y.S., Moon, J.H., Byun H.R., Chung M.R. & Hong, M.J. (2007b) *Case Study on the Bedrooms' Environment of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8(2)
7. Kellett, P., Gilroy, R. & Jacson S. (2005), *Space, Identity and Choice: Exploring the Housing Arrangement of Older People in Martins, B. and Keul, A. (eds.) Designing Social Innovation: Planning, Building, Evaluating*, Hogfre and Huber, Gottingen, 291-299.
8. Marcoux, J.S. (2001), *The Refurbishment of Memory*, in Miller, D.(ed.) *Home Possessions: Material Culture behind Closed Doors*, Berg, Oxford, 69-86.
9. Shenk, D., Davis, B., Peacock, J.R. & Moore, L. (2002), *Narratives and Self-identity in Later Life-Two Rural American Older Women*, *Journal of Aging Studies*, 16(4), 401-413.

(接受: 2007. 7. 26)